==========

16/04/24(주) 주일예배 / 제목 :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 5:1~3) p.5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 소원이 있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어디를 가 봐도 "福"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문이나 창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새겨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동양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제일 좋은 인사말이 "God Bless You."입니다.

이처럼 복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인간의 소원이 그렇게 복을 받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창1:2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사람들도 이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인데 바로 5장이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의 주제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산상수훈은 일반적으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공생애 초기에 하신 설교로 봅니다. 내용을 보면 천국 시민의 복, 천국 시민의 계명 실행, 기도, 구제, 물질생활, 관용, 진실, 분별력, 실천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핵심은 결코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과 복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이란 여덟 가지 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누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팔복에 대하여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흔히 사람들은 복 하면 오복을 말합니다. 그 오복이란 五福 -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을 말하는데, 장수하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도덕을 낙으로 삼고, 명대로 살고 죽는 것! 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오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오복은 육체가 위주인 반면에, 팔복은 영혼이 위주입니다. 그리고 오복은 물질이 위주인 반면에, 팔복은 영적 은사가 위주입니다. 또한 오복은 현세 위주인 반면에, 팔복은 내세가 위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복은 구원이 없는 복인데, 팔복은 구원을 필수로 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복은 세상 사람들이 간혹 누리는 복인 반면에,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복을 좋아하지 마시고, 팔복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팔복은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갈등으로 암살되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마 5~7장)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비록 힌두교도였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최고의 말씀으로 여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밤낮으로 애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은 아주 훌륭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으뜸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 산상수훈입니다. 본문에서 '가난'이란 말의 뜻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 극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게 되어서(to be poor), 비천한 처지로 전락되어 (to be humble), 억압받는 상태에 빠지고(to be depressed), 이런 외적인 상태와 더불어 내면적으로, 풀이 죽어 있고 (cast down), 사는 것을 괴로워하는(afflicted)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란 말은 물질적인 가난과 함께 정신적인 가난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령 가난을 겸손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무소유자, 낮추는 자, 겸허한 자 등등. 그러나 심령 가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 가난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거지 신세임을 통렬히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는 의의 빈곤자, 의의 거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과 의로움보다 죄와 불의와 악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신뢰와 확신보다는 의심과 불신앙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의 거지입니다. 아는 것은 극히 작고 모르는 것은 지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의 빈곤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약하고, 죄에도 약합니다. 그 결과로 수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지식의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영적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의의 갈망, 사랑의 갈망, 생명의 갈망, 믿음의 갈망, 지혜의 갈망, 능력의 갈망, 영적 지식의 갈망.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갈망을 무엇으로 채운단 말입니까? 오히려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령 가난 자체가 천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 가난으로 인해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하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심령 가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 가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 부자가 아닌 심령 거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존파' 아시지요? 김기환(두목), 강동은, 김현양, 강문섭, 문상록, 백병옥, 이경숙 이상 일곱 명은 백화점 고급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골라 죽이는 패륜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육을 먹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사체를 태우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현장검증에서조차 '더 못 죽인 게 한이다.'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웠던 철면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의 구치소 생활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3만원씩 영치금을 넣어주고, 겨울에 솜옷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편지를 쓰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두목 김기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김현양으로부터도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주신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 심부름 하시는 천사님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곳 교도소를 죄짓고 들어온 삭막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느님을 만났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지요? 이 글을 읽을 때 저의 마음속에 와 닿는 글귀는, 그리고 긴 여운으로 남은 말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 '저 같은 죄인에게'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알았을까? 극악무도한 범죄자일수록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나만 죄인이냐?' 항변하기 일쑤인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통절히 느낀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는 '나는 죄인이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병 고침을 받은 것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입니다. (계3: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요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죄인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그 처지가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멀었는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고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 됨을 아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2.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천국가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또 지성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갖가지 설명을 갖다 붙입니다만 한마디로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함입니다.

지옥이란 안 가면 좋고, 가도 할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유황불 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체험하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유황불 못'이었습니다. (계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20:14)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옥? 지옥 가더라도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지옥의 고민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에 빨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에는 그렇게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거지였던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이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어서 다섯 명의 자기의 동생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설령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세상에 가서 지옥의 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옥이 있다고 설교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지옥의 두려움을 알고 천국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였지만 '박영문 장로'라는 분이 형님의 15년간의 새벽기도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천국만 보았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깨어나는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고 국내와 해외까지 교회를 다니며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며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아는 것입니다. 2.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3.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깨끗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 속 깊이 감추어진 더러움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만하면 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욕망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칭찬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당 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줄기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곳의 형편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에서 뒹굴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성령이 비취시는 밝은 빛 앞에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내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은 칼이 되어 내 추한 영혼을 헤집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확실히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

외마디는 롬 7:24절입니다. (롬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8:25)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찬363장)에서 한 이름 모르는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3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1)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2) 지옥 형벌이 두려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므로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내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것들을 얻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이 임하는 것이고 현세적인 천국이 이 땅에서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세적인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 자기 자신의 죄인 됨을 아는 것입니다.
2.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3. 자기 자신은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created by free version of DocuFreezer